

Exploring Individual Choice in Community: Focusing on Williams and Railton's Discussion of Integrity

Taesoo Kim¹, Dugsam Kim^{2*}

¹Seoul National University, ²Daej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dividual agency within a community, focusing on integrity as discussed by Williams and Railton. It explores Williams' integrity threat argument, Railton's counter-arguments, and their practical relevance in everyday challenges, addressing the moral dilemma of sacrificing some for the greater good.

[Contents] This paper examines the community-individual agency relationship within a utilitarian framework, specifically Williams' integrity threat argument and Railton's sophisticated consequentialism counter. Starting with Williams' argument, it explores Railton's counterarguments categorized as personal, non-personal, and social. We assess Railton's proposed alternatives, shedding light on issues within Williams' argument, including integrity limits, the passive responsibility argument, and other pertinent problems.

[Conclusions] This study reveals potential conflicts within communities and explores reconciling collective well-being with individual interests in utilitarianism. It suggests that open consultation should determine actions when individual integrity is threatened. However, in severe peril, objective utilitarianism may offer a pragmatic solution while nurturing ethical consideration for one's integrity and the well-being of others.

[Keywords] Individual, Community, Williams, Railton, Integrity

* Corresponding to Dugsam Kim (Professor, College of Sangsaeng Liberal Arts, Daejin University)
E-mail : konglai@naver.com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공동체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탐구: 윌리엄스와 레일턴의 온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김태수¹, 김덕삼²

¹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객원연구원, ²대진대학교 상생교양대학 교양학부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공동체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윌리엄스와 레일턴의 온전성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과 이에 대한 레일턴의 반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일상의 문제와 적실성을 고찰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문제를 탐구한다.

[연구 내용] 본고에서는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문제를 탐구한다. 특히 윌리엄스의 ‘온전성(integrity) 위협 논변’과 이에 대해 ‘세련된 결과주의(sophisticated consequentialism)’를 표방하는 레일턴의 반론을 중심으로 논한다. 검토를 위해 우선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을 살펴본다. 이어서 이에 대한 레일턴의 반론을 개인적 차원의 반론, 비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반론, 레일턴 대안의 적실성으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끝으로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즉, 온전성 제한의 문제, ‘소극적 책임’에 대한 반론의 문제 및 그 밖의 문제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 본문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서 공리주의가 표방하는 최선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다루었다. 그 결과, 온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일반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그에 따른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심각한 위험 상황이라면 객관적 공리주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서 자신의 온전성과 남을 잘되게 하는 최선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윤리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차선의 최선일 것으로 평가했다.

[주제어] 개인, 공동체, 윌리엄스, 레일턴, 온전성

I. 들어가는 말: 공동체와 개인

서양의 규범 윤리학에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논의와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공리주의에 대한 논의도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에서의 문제를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를 옳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결과주의에 귀속되는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원칙적으로 결과만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유일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도덕이론이다(Julia, 2012: 1-2).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행위자가 최선의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의 다름과 차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공동체 전체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개인이 희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면 때문에 롤즈(John Rawls)는 공리주의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John, 1999: 24). 특히 그는 정의론 측면에서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이 강요되는 것을 반대한다. 즉,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의 정당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Rawls, Hwang trans., 1985: 25-26).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다수의 (심지어 그 소수까지 포함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소수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소수의 합인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는 결과에 치중하기에 과정 즉 행위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래서 논란이 발생한다.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과정도 좋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공동체와 개인의 정의를 위해 불의를 제거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일은 윤리적으로 간단히 재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관점과 입장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고, 각자의 주장은 힘을 가진 집단과의 연계 속에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선진시기 철학자 장자(莊子)는 다음과 같이 설파한 바 있다. “서로 다른 (인식의) 입장으로 본다면 (한 몸에 있는) 간과 쓸개도 초나라와 월나라만큼 멀고, 같은 (인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¹⁾ 말인즉슨 같다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것도 같고, 다르다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것도 다르다는 말이다. 기실 세상의 많은 일이 이처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²⁾

1) 『莊子』 德充符: 自其異者視之 肝膽楚越也 自其同者視之 萬物皆一也.

서양의 규범 윤리학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논의를 발전시킨다. 공리주의도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고민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엄두에 두고, 본고에서는 공리주의를 중심으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문제에 집중한다. 특히 칸트윤리학과 공리주의와 같은 규범적 도덕체계를 반대하는 반이론(anti-theory)적 철학적 윤리학자 윌리엄스(Bernard Williams)의 ‘온전성(integrity) 위협 논변’과 이에 대해 ‘세련된 결과주의(sophisticated consequentialism)’를 표방하는 레일턴(Peter Railton)의 반론을 중심으로,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이상적 방향을 추구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속의 개인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공리주의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했을 때도 결과를 낳은 직접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윌리엄스는 공리주의가 개인의 인격적 온전성(integrity)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이 온전성과 관련하여, 드라이버(Driver)는 행위자가 추상적 원칙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하는 덕목이라고 풀이한다(Driver, 2012: 57). 이렇듯 자기 충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전성은 행위자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자기 충실성으로서의 온전성을, 비판적 성찰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도덕적 덕목으로 정리하기도 한다(Han, 2018: 109-134).

온전성 시각에서 볼 때, 행위자 개인의 삶은 공리주의 원칙으로 인해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 점이 본 논문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공리주의에서 총체적 선의 극대화를 위해, 사랑이나 우정과 같이 자신과 동일시하는 개인 온전성의 근간인 근본계획이나 신념(ground projects or commitment)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온전성 침해가 된다. 나아가 이러한 요구는 “행위자를 그의 행위 및 신념 속 행위의 근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Williams, 1973: 116)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는 주장도 성립하게 된다.

이 ‘온전성 위협 논변’에 대해 레일턴은 다른 입장을 보인다. 그는 세련된 결과주의를 주장한다. 레일턴의 주장은 쾌락주의의 역설(paradox of hedonism)이나 앞서 언급한 윌리엄스의 주장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제시된다. 레일턴은 도덕적 결정이 다양한 삶의 가치로 이루어지는 세련된 결과주의를 채택한다면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행위자는 전체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낳을 삶을 선택하되, 근본계획이나 신념 등을 저버리지 않고 그 핵심 가치를 포섭하는 절충적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결과주의

2) 우리 속담 가운데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는 말과 통한다. 혹은 ‘여도지죄(餘桃之罪)’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자는 이러한 현실의 실상을 간파하고 불견시비(不譴是非)의 자세를 취하며, 보다 높은 도의 세계에서 이를 아우르고자 하였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다른 지점이다.

입장에서 최상의 옳은 행위는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전체 공리를 증진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Railton, 1984: 153-154, 158-159).

이 논의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 공리주의가 표방하는 최선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다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레일턴의 반론을 중심으로 ‘온전성 위협 논변’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겠다. 나아가 이 논의를 확장하여 ‘소극적 책임론’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쟁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 따라, 본문 2장에서는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윌리엄스 ‘온전성 위협 논변’에 대한 레일턴의 반론을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특히 세련된 결과주의와 개인적 차원의 반론, 비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반론, 그리고 레일턴 대안의 적실성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윌리엄스 ‘온전성 위협 논변’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특히 온전성 제한의 문제, ‘소극적 책임’에 대한 반론의 문제를 검토한 후, 결과주의나 공리주의 관점에 대해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고려해볼 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

1929년 영국에서 태어나 2003년에 사망한 윌리엄스는 공리주의 윤리와 칸트 윤리와 같은 도덕체계를 비판하고, 도덕철학에 인본주의와 자아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윌리엄스는 공리주의와 관련한 문제에서 공리주의가 개인의 온전성을 침해하고,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보았다.³⁾ 일반적 맥락에서 온전성이란 개인의 인성이 지닌 정직성, 고결성 등의 특정 성질, 덕목을 가리킨다. 윌리엄스에게 온전성이란 행위자가 온전한 인격체로서 마음속 깊이 지닌 자기 자신의 원칙, 신념, 소신에 따라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행위 하게끔 하는 덕목을 말한다. 즉 행위자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의도하는 중대한 계획과 결정에 따라 자신을 통합시키는 행위의 원천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끔 하는 덕목(인격적 통합성)을 가리킨다.⁴⁾ 먼저 윌리엄스가 주장한 온전성 위협 논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개인은 근본계획 및 도덕 감정(신념)을 지닌다. [전제]

- 3) 외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도덕적 덕목으로 온전성, 혹은 자기 충실성을 보았고, 이러한 온전성을 지닌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했다(Han, 2018: 109-134).
- 4) 이러한 맥락에서 온전성 또는 통합성 개념은 각 개인이 온전한 인격체 그 자체로서 자신이 지닌 개별성을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Rawls, 1999: 24; Williams, 1973: 116-117).

(ii) 그런데 공리주의가 최고선을 위해 개인이 가장 관심을 쏟는 근본계획이나 신념의 포기를 요구한다면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 근원인 도덕 감정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다. [모순 1] (Williams, 1973: 116)

(iii) 나아가 행위 결과뿐만 아니라, 영향 범위 내의 막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도 소극적 책임을 진다면 중대한 신념을 저버리게 하는 과도한 요구이다. [모순 2] (Williams, 1973: 95)

(iv) 이는 개인 온전성에 대한 침해이다. [결론] (Williams, 1973: 116)

여기서 행위 및 도덕 감정의 측면[모순1]과 결과주의의 과도한 요구인 소극적 책임[모순 2]은 상호 연계되어 소외 논변을 이룬다. 우선 (iii)과 관련하여 윌리엄스는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여기서는 온전성 위협 논변에 더 큰 문제를 제기하는 (iii) 논변의 두 번째 사례만 분석하기로 하자.

(iii) 사례 2) 짐은 곧 처형되려고 하는 20명의 무고한 인디언 포로들과 우연히 마주친다. 체포자 페드로는 만약 짐이 그 포로 중 한 명을 쏜다면, 다른 이들을 놓아주겠다고 제의한다. 짐은 페드로의 이 제의를 싫어하지만, 포로들은 짐에게 수락해 줄 것을 간청한다. 짐은 어떻게 해야 할까?(Williams, 1973: 98-99)

공리주의에 따르면 정답은 체포자 페드로의 ‘제의를 받아들여라’ 일 것이다. 왜냐하면, 사례 1)의 조지의 경우⁵⁾에서도 그렇지만, 만약 행위자가 제의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결과는 더욱 나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는 온전성의 측면에서, 자신이 한 명을 죽임으로써 열아홉 명이 살아난다고 해도 ‘자신이 직접적인 살인을 감수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답의 올바름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고려가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가”이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행위자 개인 행위의 온전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Williams, 1973: 99).

비판의 적실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이 온전성 위협 논변을 ‘도덕 감정’ 및 ‘행위로부터의 소외’로 나누어 고찰해 보자.

5) 신진 화학자 조지(George)에게 선배가 생화학무기 연구소의 일자리를 제안한다. 조지는 생화학 전쟁을 반대하기에 이 제안을 거절한다. 이때 선배는 조지가 거절할 경우, 다른 이가 그 일을 맡게 되어 인류에게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선배도 생화학 전쟁의 피해를 줄이고자 조지에게 이 일을 권한 것이다. 조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ii-1) 우선 행위 근원(도덕 감정)으로부터 소외에 대한 공리주의 반론의 핵심은 ‘심리적 결벽’론이다. 즉, ‘짐이 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결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Williams, 1973: 102).

이에 대하여 윌리엄스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결벽’ 주장이 적절하지 않은 까닭은 도덕 감정을 단순히 공리주의적 가치의 대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세계에 대한 도덕적 관계가 그런 감정에 기초하므로, 이를 단순히 공리주의적 관점, 즉 개인의 도덕적 자아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여기는 것은 도덕적 정체성, 곧 온전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Williams, 1973: 103).

(ii-2) 두 번째 행위로부터의 소외란, “행위자의 계획/신념이 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계획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타인의 계획은 무제한적으로 그의 선택에 영향을 주며, 인과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적 상황에 따라 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 그는 세계에 인과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지점, 곧 모든 사람의 계획을 입력하여 효용 극대화 결정을 출력하는 통로에 불과하다(Williams, 1973: 116).

이상 인용 내용과 같이, 윌리엄스는 공리주의 이론이 인과적 범위 안에 있는 무해한 계획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해로운 계획은 무산시키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윌리엄스는 이러한 구조가 삶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계획과 신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효용 구조의 최적화된 결정에 따라 개인에게 중대한 신념의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온전성에 대한 침해라고 본 것이다(Williams, 1973: 116).

III. '온전성 위협 논변'에 대한 레일턴의 반론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은 결과주의 도덕 관점을 취함으로써, 중대한 계획과 온전성이 침해되고, 그로부터 소외된다(alienated)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피터 레일턴은 윌리엄스의 논변 중 주관적 결과주의가 소외를 초래하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 ‘소외 논변’을 피해갈 수 있는 형태의 결과주의를 개발했다.

1950년 미국에서 태어난 레일턴은 윤리와 과학 철학에 관심을 갖고, 객관성, 가치와 규범 등에 집중하며, 결과론과 메타 윤리 방면의 연구에 정진했다. 레일턴은 결과주의적 고려 자체가 온전성과 같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성격 특성과 양립하기 힘들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비록 다른 가능한 행위보다 나쁜 결과를 산출하기에 틀린 행위이지만, 행위자가

지니면 좋을 특성으로부터 행위가 산출될 수 있다는 세련된 결과주의 혹은 특성 결과주의 (Trait-consequentialism)를 주창했다(Railton, 1984: 157-158).

레이턴의 논변은 공리주의에서 ‘행위자의 사고성향과 습관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무관하게 최고선만을 위해 존재할 때, 더 이상 공리주의가 없는 것이 된다’(Williams, 1973: 134-135)라는 윌리엄스의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된다. 이를 위해 우선 결과 원칙에 기초한 윤리이론의 채택 기준에 따라 공공성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주관적 결과주의(subjective consequentialism)의 결점을 인정한다. 주관적 결과주의란 의사결정에서 최고선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능한 행위(available action)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전통적 결과주의 이론이다. 그런데 레이턴은 의사결정을 숭배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윌리엄스의 주관적 결과주의 비판은 객관적 결과주의인 자신의 도덕 이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윤리이론의 진리조건이란 수용 조건과 다르기에 특정 맥락에서 상황에 따라 결정방식을 채택하는 자신의 도덕성 이론은 주관적 결과주의와 다르며 경험적인 방식으로 올바른 행위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다(Railton, 1984: 155).⁶⁾ 나아가 자신의 객관적 결과주의는 개인적/비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관계에서 소외를 극복하는 한층 효과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논변을 제시한다. 개인적 및 비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반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차원의 반론: 세련된 결과주의

우선 레이턴은 소외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우에 따라 소외가 아닌 것과 상충하는 다른 가치들이 더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오히려 소외는 사랑·우정에 집착이 생길 때 도덕적 고려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본래 계획을 변경하거나, 한층 확고하게 하는 자율성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레이턴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온전성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 가치들도 고려해야 한다. …… 근본계획과 온전성은 대개 자율적으로 택하지 않은 조건, 곧 문화나 가족 구성원 등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경우, 객관적이고 공평한 도덕적 관점을 취할 때 계획과 온전성을 한층 잘 이해할 수 있다(Railton, 1984: 146-147).

이처럼 레이턴에 따르면, 행위자는 항상 결과주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관심·계획의 소외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면서도 용납하기 힘든 삶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윌리엄스가 비판의 근거로 삼는 개인의 온전성과 같은 본질적 가치를 객관적 결과주의가 추

6) 이는 객관적 결과주의와 특정 의사결정 간에 특정한 연계가 없기에, 실제 원리로는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구해야 할 선이나 목표로 설정하여 결과주의 구도 안에 통합시킬 수 있다. 가치의 양에 따라 순위를 정해 전체적으로 최선의 사태를 산출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를 전면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ailton, 1984: 149-150). 즉, 최선의 결과를 위해 일부에게 온전성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본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논변이다.

여기서 레일턴은 비결과주의 사상을 결과주의의 틀 안에 포섭하는 세련된 결과주의의 방식을 모색한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비결과주의자의 윤리를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사랑·우정 등의 근본 계획 그 자체를 진정으로 체화하여 온전성 반론을 피하는 전략을 취한다. 나아가 개인의 온전성을 장기적 효용의 차원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최상의 윤리적 선, 예컨대 전체적 행복과 복지를 산출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포섭한다.⁷⁾

2. 비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반론

레일턴과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최선을 위해 행할 수 있다는 결과주의의 전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최선의 결과를 모색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혼용적 입장을 강조한 셰플러(Samuel Scheffler)는 결과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결과주의는 제일 순수하고 단순한 형태를 갖는다. 결과주의는 어떤 상황에서 올바른 행위는 모든 이의 이익에 동일한 무게를 부여하는 비개인적(impersonal) 입장에서 판단하였을 때, 최선의 종합적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라고 보는 윤리 이론이다(Scheffler, 1988: 1).

이상과 같이, 결과주의는 비개인적,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때,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중시한다. 레일턴과 마찬가지로 셰플러 또한 자율적으로 자신의 선을 희생하면서까지 최선의 결과를 모색하는 것을 결과주의의 특성으로 본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결과주의 도덕 직관의 요소를 포함하는 행위자 중심 특권(agent-centered prerogative) 이론⁸⁾을 결과주의 구도 안에

7) 레일턴은 존(John)과 헬렌(Helen)의 예에서 보이는 주관적 결과주의나 의무론적 도덕주의 관점과 다른 후안(Juan)의 경우를 들면서, 그가 린다(Linda)와 함께 지내기 위해 과외의 여행을 한 것은 결과주의적 효용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행동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린다의 안녕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 염려, 즉 가족의 행복이라는 동기로 최선을 다해 행동한 것이므로(Railton, 152-153) 온전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행복을 증진시켰다고 말한다. 나아가 레일턴은 “결과주의적 고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사고습관을 계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련된 결과주의 방식으로 소외를 극복하고자 한다(Railton, 1984: 154).

8) ‘행위자 중심 특권’은 ‘행위자 중심 규제(agent-centered restriction)’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타인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행위자 중심 규제의 경우, 앞의 윌리엄스의 혁명군 사례에서와 같이 1명을 살해함으로써 19명의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라도 살인금지라는 규제를 적용하는 데 반해, 행위자 중심 특권에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도입한다. 이로써 최상의 윤리적 선을 추구하는 결과주의의 폭을 확대한다. 나아가 결과주의의 비개인적 입장을 행위자 중심의 특권적 가치와 조화하여 윌리엄스의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마찬가지로 레일턴 또한 비결과주의 도덕 직관의 요소를 포섭하면서도 비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적 사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듯 레일턴은 비개인적 차원에서 온전성 및 소외 반론을 피하는 데 머물지 않고, “환경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소외는 근본적 사회 비판이나 문화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Railton, 1984: 147)고 변론한다.

나아가 레일턴은 왜 행위자가 개인적 관심사를 벗어난 부담을 질 수 있는지, 비개인적/개인적 맥락이 어떻게 연계되어 소외를 극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i) 개인적 수준에서보다 사회·정치적 제도를 변화시켜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
- (ii) 개인은 사회·정치적 변화의 지원을 위해 사회 복지에만 헌신해서는 안 된다.
- (iii) 사회정치 제도의 도움으로 개인은 결과주의의 도덕적 요구를 크게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 (iv) 사회정치적 변화가 개인성 및 목표의 발현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이의 수가 혼란을 겪는다고 보는 수보다 많을 것이다(Railton, 1984: 161-162).

또 레일턴은 사회 속 개인에서 시작된 도덕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지니는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소외되지 않는다고 역설한다. 오히려 타인과 세계에 대한 관심 속에 자아와 세계와의 연대를 확장하는 가운데 도덕을 준수한다면, 개별적 신념, 근본계획이나 관계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ailton, 1984: 168).

3. 레일턴 대안의 적실성

지금까지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을 알아보았고, 이어서 이에 대한 레일턴의 반론을 개인적 차원과 비개인적 차원에서 알아보았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레일턴이 주장한 대안의 적실성(適實性)을 검토해 보자.

결과주의가 행위자와 행위의 근원으로부터 소외를 야기한다는 윌리엄스의 논변에 대해 레일턴은 결과주의적 구도 안에서도 행위자의 근본계획이나 신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로써 윌리엄스가 비판하는 주관적, 직접적 결과주의와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매 상황에서 최선의 행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에 쾌락주의의 역설을 피해가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후자를 옹호하는 학자로는 셰플러나 스캔론(Scanlon, 1976; Scheffler, 1982: 5-6)을 들 수 있다(Park & Son, 2003: 132-133).

게 된다는 것이다. 중립적 행위자가 모든 상황에서 최대로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해야 옳은 행위라는 결과주의적 정당화로부터 행위자의 동기를 분리함으로써 비결과주의적 선택을 용인하는 간접적, 객관적 결과주의인 것이다. 나아가 사회정치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도덕적 요구가 삶을 분열·소외시킬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적극적 반론을 제시한다. 즉 개인에게 주어지는 도덕적 요구의 부담 정도는 타자의 행위와 직관, 세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회정치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소외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사회나 상황에 따라 부가되는 소극적 책임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레일턴의 대안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대안의 경우, 세계의 상태가 나쁠 때 타인의 행위와 직관에 좌우되는 폭이 커져 전체 도덕의 이름하에 행위자의 근본계획과 신념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행복이라는 외부적 목표가 관계라는 내부 목적을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 개인 스스로, 또한 남을 위해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다(Railton, 1984: 145)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객관적 쾌락주의의 삶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즉, 쾌락주의의 역설(Railton, 1984: 147)을 감안하여 비결과적 목표를 포용하는 유연성은 큰 장점이지만 도덕성의 기준이 궁극적으로 결과에 있는 한 결과주의적 이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행동과 생각을 수정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언제나 결과주의 목표와 반대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충족시키려 하기에 위험성이 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 이상 및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온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한 경험적 맥락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레일턴 이론의 치명적 결함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결과주의적 이상과 도덕률에 따라 결과주의자가 도구적으로 비결과주의적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진실한 것’인지, 또한 완전히 비결과주의적 목표를 체화하여 ‘진실하다’고 할 때 그를 결과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애매함은 남는다. 브렌넨이 말하듯, 행위자가 레일턴의 방식으로 비결과주의 성향을 계발하여 진정으로 바뀌었다면, 그는 더 이상 객관적 결과주의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주관적 결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무론적 윤리나 덕 윤리와 같은 성품 계발을 도구적으로 채택하는 데 머무른다면, 행위자와 성품 간에 또 다른 소외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윤리성의 진정한 체화를 역설하는 한, 결과주의자의 행위의 근원인 근본계획이나 신념으로부터 온전성이 침해되거나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레일턴의 소외 논변에 대한 대안은 비개인적/개인적 차원 간의 관계 속에서 ‘결과주의적 관점이 온전성을 침해’한다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균형적으로 보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 중립성에 입각한 최선의 행위가 옳은 행위라는 결과주의적 정당성과 동기를 분리했기 때문에 일관된 윤리이론으로서 정립되기 힘들다는 윌리엄스 등

의 비판 또한 적절히 피해간다. 레일턴의 반응은 쉐플러와 같이 모든 사회 상황에서 인정될 수 있는 공공성의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조건에 따른 옳은 행위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제시할 경우, 윤리이론으로서 자멸적인 결함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Park & Son, 2003: 130-131).

더욱이 도덕이 시작하는 지점은 개인이지만 각 개인이 서로 연계된 관계 속에 있기에 정치·사회·문화적 연대와 결사를 통해 정치사회 제도를 개혁·변화시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구상 또한 적실성이 있다. 하버마스가 시사하듯, 이 구상 역시 의사소통과 사회적 공공성에 기초한 객관적 공리주의 윤리이론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 결과주의 시각에서의 레일턴의 이상 논점과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는, 결과주의에 대한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반론에 수반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후 전체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V. 윌리엄스 ‘온전성 위협 논변’의 문제점

1. 온전성 제한의 문제

윌리엄스의 주장은 개인의 근본계획과 신념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행위자 상대적 허용(agent-relative permissions)’의 입장에서 보면 행위자가 직접 행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소극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며, 한낱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는 칸트의 존엄성 명제와도 연계된다(Kant, Baek trans, 2014: 175). 개인의 합리적 이성에 입각한 근본 계획이나 본질적 가치가 지닌 함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혹은 공감하는 보편적 상식에 닿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개인의 신념, 권리, 인격은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하는 한, 공리주의나 결과주의는 이론적 한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선의 결과가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의무론적 제약(deontological constraints)’ 상황을 온전성 위협 논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비도덕적 식민전쟁이나 인종학살 정책 등도 묵인하면서 불의와 타협하는 유아론(唯我論, solipcism)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윌리엄스는 느슨한 의무론적 제한과 같은 조항을 부가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공리주의 소극적 책임론은 우리의 직관에 맞지 않으며 ……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제한되는 행위들이 있다.⁹⁾

공리주의가 소극적 책임론으로 온전성을 위협하기에 제한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레일턴은 온전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동기 영역을 효과적으로 결과주의 구도 안에 포섭시켰다. 레일턴의 시각에 따르면, 자신의 온전성 보호만을 생각해서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나 반도덕적 행위로부터 무고한 동료 시민을 구할 수 있는 상황, 또는 공익을 위해서도 개인 온전성의 일부도 희생하지 않으려는 행위 또한 공동체 윤리의 입장에서는 문제시될 수 있다. 공동체 윤리로 볼 때, 반도덕적인 행위의 경우, 오히려 약간의 온전성을 침해하더라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느슨한 제한 규정을 수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일턴이 설명하듯이, 불가피한 공공선을 위해 비개인적 관점에서 근본계획에 제한을 두는 것을 소외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사회·정치적 변화를 통해 복지를 증진시킴으로써 구성원의 계획과 신념을 돕고 소외를 줄이는 기제는 약간의 제한을 통해 촉진될 수도 있다. 온전성 위협 논변이 비개인적 목표에 따라 최선을 요구할 때 주어지는 희생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세련된 결과주의 논변은 사회·정치적 변화와 약간의 제한을 통해 소외를 극복하고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개인적 관점과 관련하여 윌리엄스는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이론의 공평무사성과 도덕성은 개별적 도덕 행위자로부터 너무 독립적이어서 윤리적 고려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공리주의 가정에 의해서는 결과만을 결정할 뿐, 행위 가능한 변용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레일턴이 반론하듯이, 개인적으로는 특정 소외를 계발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정치적으로는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취하는 세련된 결과주의적 방식으로 얼마든지 개인의 온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2. '소극적 책임'에 대한 반론의 문제

윌리엄스는 자신의 온전성 논의 중 소극적 책임과 관련된 짐의 사례에서, 설령 공리주의적 답이 맞다 하더라도, 이 방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비결과주의적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짐의 사례에서 윌리엄스는 비결과주의적 고려의 결과, 근본계획에 도달하는 고려과정에서 어떻게 선택의 경중을 가늠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짐의 근본계획이 19명의 목숨을 상쇄할만한 비중이 있을 때만 비결과주의적

9) 윌리엄스는 몇 가지 측면에서 행위공리주의가 일상적이며 상식적 도덕 직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네이겔(Nagel)은 “행위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가한다.”는 윌리엄스와 달리, “너무 허용적이기도 하다.”는 이유에서 비판한다(Park & Son, 2003: 122, 135).

고려의 중요성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급부를 상쇄할 만큼 짐의 신념이 고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례에 대한 비결과주의적 고려에는 소극적 책임 문제 이상의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즉 『맹자』에서 ‘우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하는 종류’의 예와 유사한 존엄성에 대한 고려가 그것이다. 윌리엄스는 짐의 사례를 ‘행위 발생의 주체’의 관점에 국한하여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소극적 책임의 부당성이라는 온전성 침해 도식으로만 간주한다.

물론 행위 발생의 원인은 페드로이므로 짐이 페드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학살사태의 1차적 책임은 페드로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구할 수 있었던 생명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소극적 책임을 넘어 간접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 자신의 온전성만 고집하다가 무고한 생명의 사망을 방관하는 것보다, 살인하지 않겠다는 근본계획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율성이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인격의 온전성을 덜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이 점에서도 윌리엄스는 세련된 결과주의의 유연하지만 총체적인 관점과 다르다. 윌리엄스의 논의에는 행위자(짐) 자신의 입장만이 아니라, 타인(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관점이 배제되었기에 심리적 결벽에 빠진 이기주의적 논변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더욱이 윌리엄스는 공리주의가 행위자를 결정 권한이 없는 인과관계 속의 한 지점으로 본다고 비판하지만, 짐 또한 자율성을 지닌 행위 주체이다. 해리스가 지적하듯이 짐이 페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짐이 페드로로 하여금 사태를 변화시키도록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페드로는 짐이 1명을 죽이라는 제의에 동의하게끔 할 수 없다.¹⁰⁾ 즉, 짐이 1명을 죽이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짐이 소극적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비결과주의적 측면에서 다른 고려 또한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일 경우, 더욱 그렇다.

이렇듯 비결과주의적 고려에서 존엄성과 자율성 및 이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선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완전한 온전성 침해 논변으로 정식화하기 어렵다. 결국, 윌리엄스 논변의 단점은 레일턴의 총체적 관점과 달리, 개인적 행위 주체의 입장을 벗어나 자신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 살려주기를 간청하는 19명 인디언들을 구하려는 관점에서 온전성의 범위를 타자와의 연대속으로 확장시키지 못하는 비유연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다른 측면의 문제

지금까지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과 이에 대한 레일턴의 반론, 그리고 이어서 윌리엄

10) 윌리엄스가 주목하는 ‘사태를 발생시키게 함’이란 행위자가 사태를 발생시키게 한다는 적극적 의미의 특징과는 다르다. 해리스는 이를 특정 사태의 발생을 보증하는 완전한 통제력으로 이해한다(Harris, 1974: 269-270).

스 ‘온전성 위협 논변’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를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이들의 논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로써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동체에서 개인의 선택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시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레일턴 대안의 적실성을 논하기도 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레일턴과 윌리엄스의 논의가 실제 상황에 들어맞는지, 다시 말해 이상 논의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현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논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 속에 윌리엄스와 레일턴의 ‘온전성 위협 논변’을 둘러싼 논의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각자가 지닌 윤리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이다. 앞서 “최선의 결과가 산출된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의무론적 제약’을 온전성 위협 논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공동체라는 선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악행이 별다른 저항 없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뻔뻔한 태도를 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별다른 저항 없는 진행’, ‘뻔뻔함’이란 순전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해자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자신의 신념과 계획에 따른 온전성과 같은 윤리의식은 피해자가 느끼는 것과 결이 다르다. 가해자에 동조하는 세력 또한, 자신의 온전성을 명분으로 반인륜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극적 책임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에서 ‘상황’에 대해 의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다. 상황이 조작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를 취한 많은 사례에서 가해자들은 각자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합리화한 신념과 계획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신념과 행위에 정당성(권위)을 부여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누구나 명분과 이유가 있는 행동을 취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성과 교양을 갖춘 나치 정권의 장교들은 왜 히틀러의 비이성적이고 잔인한 명령에 절대복종했을까? 일본 731부대의 끔찍한 만행은 어떻게 자행될 수 있었을까? 왜 비인간적인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왜 권력자의 명령에 끔찍한 대량학살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1963년에 스탠리 밀그램(Stanley Milgram)이 시도한 ‘징벌에 의한 학습효과’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Kim, 2022: 96-97). 실험 참여자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의심하지 못하고, 실험 참가자로서 실험을 진행하

11)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생각이 그렇다. “공산주의 공동체. 우리는 이 용어들을 역사의 거대한 오류에 따라 몰락 그 너머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난의 밑바닥으로부터 이해하고 있다. …… 우리가 공산주의 공동체라는 용어들을 조용히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 이 용어들이 우리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묶여 있는 것이다(Blanchot & Nancy, Park trans., 2005: 12).”

는 사람의 온전성과 약속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랐다. 조건, 계약, 주어진 메뉴얼에 충실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한다.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윌리엄스가 지적한 ‘온전성 위협’이나 레일턴의 반론을 넘어, 이러한 논변이나 변론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상황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 속에서 윤리의식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나오는 말: 문제점과 대안

공동체에서는 구성원과 구성원, 그리고 공동체와 구성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구성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다. 공동체를 개인보다 위에 두고 공동체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는 전체주의에 가깝다. 우리는 아직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일인은 만인을 위하기도 하지만, 만인도 일인을 위하는 세상이 되어야 공동체적 가치가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본문에서는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과 이에 대한 레일턴의 반론을 고찰하였다.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개인의 온전성을 지키면서 전체의 선을 다치지 않게 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데 그 핵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레일턴과 같은 객관적 공리주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 두 목표를 모두 균형 있게 이룬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는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이 지적한 공리주의 괴물(utility monster) 논변에서도 잘 나타난다.

공리주의 이론은, 다른 이들이 잃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공리의 총합을 얻는 공리주의 괴물로 곤란에 처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 이론은 전체의 공리를 증가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괴물에 희생되어야 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Nozick, 1974: 41).

이상과 같은 노직의 사고 실험에 따르면, 행복을 느끼는 데 한계가 없는 공리주의 괴물이 있다고 가정할 때, 모든 이들의 행복을 최소한으로 하고 공리주의 괴물의 행복을 무한대로 올린다면 전체 행복의 총량이 증가하는 모순적 결론에 이른다. 그렇지만 레일턴과 같은 객관적 공리주의 입장에서 볼 경우, 공리주의 괴물과 같은 고급의 존재와 일반인 간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공리주의 괴물의 행복 감수 능력에 한계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주어진 행복의 양과 다른 양을 부여받을 수 없다. 즉, 어느 한쪽에 편중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는 공동체에서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라는 두 가지 경우가 함께 존재하

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전체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 공리주의 괴물과 같이 개인의 인권에 앞서는 사례가 보도될 때 우리는 그 윤리적 상황을 비판하곤 한다. 마찬가지로 본고에서 제기한 윤리적 선택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존재하는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불안정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피상적으로 보고 간과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는 주관적 결과주의의 비개인적 최대 효용 원칙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덕 원칙으로 작용한 이후의 부작용도 목도할 수 있다. 윌리엄스가 비판하듯이, 개인의 온전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내적 분열을 초래하고, 개인의 삶과 인격 형성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물론 이에 대해 한층 보완된 형태로 개인의 온전성을 우선시하는 이론도 있지만,¹²⁾ 그 역시 한계는 있다.

윌리엄스의 ‘온전성 위협 논변’과 이에 대한 레일턴의 반론,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일상에서의 문제를 적실성과 함께 고찰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단체, 사회, 국가, 나아가 지구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직면하는 개인의 선택 문제와 관련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상 논의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것과 같은 윤리적 선택의 딜레마 가운데 대중적으로 관심을 끈 문제로 자율주행차의 ‘트롤리 딜레마’ 논쟁이 있다. 즉, 만약 자동차 고장으로 사고 발생이 확실한 상황에서 도로의 한쪽에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10명 이상의 금치산자가 있다면 자율주행차는 어떤 윤리적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자동차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능력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그런데 인간이 운전기사일 경우에는 어떠할까? 인간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는가, 아니면 윤리 교육을 통한 훈련이 필요한가? 대다수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할 겨를 없이 행동한다. 이를 본능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간의 두뇌로는 철로나 차도의 갈림길이라는 딜레마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힘들다.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고를 당할 사람들의 세세한 상황을 알 수 없다. 또 자동차도 인간도 사전에 주입된 프로그램을 행동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트롤리 딜레마’ 논쟁은 바로 그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묻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다룬 것처럼, 모두를 만족시킬 정답이 없고, 각각의 상황 속에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할 ‘구체적 사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추상적 이론으로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보다 안전하고 공익을 우선시하며 실수를 적게 한다. 이

12) 예를 들면 다월(Stephen Darwall)의 이론이 그렇다(Darwall, 1986: 291-319).

러한 면에서 인간보다 나올 수 있다. 더욱이 인간 또한 제대로 처신하거나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율주행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문제 자체에 너무 많은 힘을 낭비하기보다 ‘기술 발전’에 주력하여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서 ‘혁신적 상상’으로 위기를 피하거나 모면하게 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제한된 기술로 안전한 대비책을 보장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는 본질과 상황을 왜곡시키지 말고 최소한의 희생을 선택하는 쪽이 차선의 최선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차선의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이를 체화하는 윤리적 훈련이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객관적 결과주의는 비교적 합리적 대안을 시사한다. 즉, 온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일반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그에 따른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자율주행차의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심각한 위험 상황이라면 객관적 공리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자신의 온전성과 남을 잘되게 하는 최선의 결과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윤리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차선의 최선이 아닐까 한다.

References

- Blanchot, M & Nancy, J. L. *La communauté inavouable*. 박준상 옮김 (2005). 밝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서울: 문학과지성사.
- Darwall, S. (1986). Agent-Centered Restrictions from the Inside Out, *Philosophical Studies*, 50, 291-319.
- Driver, J. (2012). *Consequentialism*. Oxon: Routledge.
- Han, K. H. (2018). Self-fulfillment for a happy life. *Philosophy*, 136, 109-134.
- Harris, J. (1974). Negative Responsibility and Integrity, *Philosophical Quarterly*, 24(96), 265-273.
- Kant, I.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백종현 옮김 (2014). 윤리형이상학 정초. 파주: 아카넷.
-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 Park, H. C. & Son, K. W. (2003), Act Consequentialism and Integrity, *SNU Journal of the College of Education*, 67, 121-139.
- Railton, P. (1984). Alienation, Consequentialism, and the Demands of Moralit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3(2), 134-171.
- Rawls, J. (1999).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 옮김 (1985). 사회정의론. 파주: 서광사.

- Scheffler, S. (1988). "Introduction," in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Samuel Scheffler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
- Williams, B. (1973). "A critique of utilitarianism," in J.J.C. Smart & Bernard Williams, *Utilitarianism For & Again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김덕삼 (2022), 변화와 장의 탐구 - 중국의 사람 · 사회 · 문화를 중심으로, 파주: 한국학술정보.
(Translated in English) Kim, D. S. (2022). *Exploring change and field-Focusing on the people, society, and culture of China*. Paju: KSI.
- 신용하 편 (1985). 공동체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Translated in English) Shin, Y. h. (1985). *Community theory*. Seoul: Moonji Publishing Co.
- 莊子. *Zhuangzi*. 德充符.